

정치권 미스터라...네이버 연일 때리는데 “증인 신청엔 글썄...”

국감·수사기관서 각종 의혹 잇따라도 경영진 답변 들을 기회 없어



지난 9월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모습.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중 부장검사)는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차병원 관련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각종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국감 증인으로는 네이버 핵심 경영진들이 채택되지 않아 세간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비단 국감에서뿐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검찰이 네이버 사무실은 물론 직원들의 자택까지 뒤지는 등 사태가 커졌는데도, 국회가 책임자들을 증언대에 세우지 않는 것은 '적무유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13일 국회와 정치권, 관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하순 열리는 국감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네이버 경영진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주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출석 통보해야 한다는 국회 규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정기 국감에서 네이버 핵심 임원들을 증언대에서 만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무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이 여야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모두 출석해 올해 다시 부르기 부담된 것 아닌가 한다”고 분석했다. 여야는 과거정통위에서 이목이 쏠린 사안의 핵심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측은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네이버 관계자들을 국감 종합감사 증인으로 부를 것을 신청했지만 야당이 현직 관계자 채택만 고수해 합의가 결렬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거정통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실 측은 “우리 당에서는 원칙적으로 의혹 해소에 필요한 관계자는 모두 부르는 입장이지만, 당시 사건과 아무 관련

도 없는 네이버 현직 임원만 부르자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부르려 했던 네이버 전·현직 관계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김상현, 김재욱 전 대표, 네이버가 성남FC에 우회 지원한 통로가 됐던 공익법인 '희망살림' 후원 협약서에 서명했던 김진희 네이버 I&S 전 대표 등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관계자는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손톱슨 넷플릭스코리아 대표와 낸시 메이블 위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덴우드 에플코리아 대표 등 글로벌 빅테크 임원들과 3대 이동통신사 임원들만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 송진영 기자

北, 9개월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김정은, 터널서 참관 추정

‘킬체인 회피’ 은·엄폐 시도한 듯

북한이 9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개 보도하면서 여기에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은 12일 새벽 평남 개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됐다.

군은 실시간으로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감시와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한

미 공조하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보름간 7차례에 걸쳐 벌인 탄도미사일 도발이 전술핵운용부대 훈련이었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술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순항미사일도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현지 지도에서 “오늘 올린 미사일 폭음은 적들에게 또다시 보내는 우리의 명명백백한 경고”라며 “우리 국가의 전철역제력의 절

대적인 신뢰성과 전투력에 대한 실천적인 검증이고 뚜렷한 과시”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사가 대남·대미 무력시위의 성격임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특히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발사 장소가 도로로 추정되고, 김정은은 아치형 지붕이 식별되는 실내에서 관측 모니터를 보는 점으로 미뤄 도로 인근 터널에서 참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터널을 활용해 킬체인 등의 감시·정찰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 정영준 기자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시작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13일 오후 서울 중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라임 몸통’ 김봉현 91억원 사기 혐의 영장 또 기각

검찰 ‘중국 밀항 추진’ 주장...법원 “보석 석방 취지 존중”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91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은 앞서 지난 달 20일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350여 명에게서 약 91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 행위규제법 위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첫 번째 구속영장 역시 “보석 허가 결정 이후 1년 넘는 기간 재판에 출석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권 부장판사는 1천300자 넘는 장문 / 문영준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는 의정활동



 youtube.com/c/인천광역시의회

 facebook.com/incheoncouncil

 twitter.com/incheon_council

 blog.naver.com/icouncil103

 www.icouncil.go.kr/journal

“아픈 아이 맡기세요”...서울시 거점형 키움센터 돌봄 지원 성북센터 ‘일시돌봄·병원동행’ 시범 운영...간호 인력 상주

서울시가 공공 돌봄시설에서 아픈 아이를 잠시 맡아 돌봐주거나 병원에 데려가 주는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7일 성북구 종암동(회기로3길 17)에 개관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이하 키움센터)에서 ‘일시돌봄·병원동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가정 등에서 갑자기 아픈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키움센터에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다. 센터에 상주하는 전문 간호 인력과 돌봄 요원이 전용 차량으로 병원에 데려가 주고, 센터 내 아동용 병상이 갖춰진 공간에서 보호자가 올 때까지 돌봐준다.

일시돌봄·병원동행 지원은 올해 8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핵심사업 중 하나다. 서울시는 성북 키움센터를 시작으로 운영 기관을 내년 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에 개관한 거점형 키움센터는 시가 성북구 소유 공공건물을 무상 임차해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7일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상 2~4층에 연면적 1천170㎡ 규모로 조성했다. 아픈아이 일시돌봄 공간을 비롯해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할 다목적공간, 요리·미술·음악 등 예체능 활동공간 등으로 꾸몄다. 시설 종사자와 이용 아동

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했다고 시는 전했다. 평일 운영 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1~7시, 방학 기간에는 오전 8시~오후 8시다.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용 신청은 전화(☎ 02-6956-7033)나 우리동네키움포털(icare.seoul.go.kr/icare)로 하면 된다. 앞서 노원·도봉권, 동작권, 종로·서대문권에서 운영 중이다. / 권혁수 기자



3년 만에 정상 개방 행사가 열린 8일 오전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탐방객들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3년만에 빗장 푼 무등산 정상 강기정 광주시장 등 2만명 천·지·인왕봉 풍광 감상

무등산 정상이 3년만에 개방돼 탐방객들로 가득 찼다. 광주시는 8일 서석대 주상절리대에서 군부대 후문을 지나 지왕봉, 인왕봉을 거쳐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km 구간을 개방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선선한 바람까지 부는 안전한 가을 날씨 속에 탐방객들은 환한 표정으로 산을 올랐다.

이날 2만여명이 무등산을 찾았고 이 중 5천명 이상이 정상구간을 오른 것으로 광주시는 추산했다. 탐방객들은 광주 도심이 한눈에 보이는 장봉재에 멈춰서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여유를 즐겼다.

지왕봉 옆 전망대에서서는 무등산에 둘러싸인 광주 시가지를 조망하면서 연신 감탄했고 비경을 카메라에 담느라 분주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정상에 올라 ‘무등산 편지’를 낭독하며 공군과 상시 개방 협의 상황을 알렸다. 광주시는 공군 등과 연말까지 상시 개방 협의를 마쳐 내년 1월 1일 새해 일출을 시민들이 무등산 정상에서 맞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탐방객들은 무등산 정상을 56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릴 수 있다는 소식에 손뼉을 치며 반기기도했다. / 최준용 기자

새 국어 교육과정에 ‘순우리말’ 들어갈까...“다양한 방안 모색중”

2015년 교육과정부터 성취기준서 빠져

새 국어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순우리말(토박이말)을 넣어야 한다는 관련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팀은 2022 개정 국어 교육과정에 순우리말 교육을 성취기준 일부나 해설, 고려사항 등으로 넣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 2009년, 2011년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는 “다양한 고유어(토박이말)를 익히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엔 이 내

용이 빠졌고, 최근 공개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도 담기지 않았다.

지난 1일 토박이말바라기, 전국초등국어교과모임, 전국국어교사모임 등 교원과 한글 단체들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공문을 보내 개정 교육과정에 순우리말 관련 성취기준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어과 교육과정위원회에도 참석해 같은 주장을 했다.

이에 개발팀은 순우리말 교육 내용을 ‘성취기준’ 일부에 넣는 안, ‘성취기준 해설’이나 ‘영역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에 명시적으로 보완·수정하는 안을 우선 고민 중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 중에서 성취기준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교과서 제작이나 교과목 반영 등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 다만 정부는 최근 학

생들의 학습량을 좌우하는 성취기준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과정을 설계하고 있는 데다 새로운 분야의 성취기준도 추가되고 있어 성취기준을 다시 추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백수민 기자

‘경기도민의 날 주간’ 문화시설 이용료 일부 지역화폐로 환급

경기도는 ‘도민의 날(10월 18일) 주간’인 17~23일 도내 박물관, 미술관 등 35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환급액은 문화시설 이용료 결제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 5천원, 3만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은 1만5천원이다. 문화시설이 소재한 시·군의 지역화

폐 카드에 충전해주며 현장에서 신규 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경기도민의 날은 ‘경기(京畿·서울의 외곽지역)’라는 지명을 쓰기 시작한 연도인 1018년(고려 현종 9년)을 뜻하는 10월 18일로, 2018년 정명(定名) 1천년을 맞아 처음 제정됐다. / 이승호 기자

숲에서 놀자! 신나는 모험세계로 떠나자!

동두천 놀자숲

실내 놀자센터
 핀클라임 : 다양한 코스의 암벽등반 클라이밍 시설
 넷트 어드벤처 : 넷트의 탄성을 이용한 특별한 그물 놀이터
 에어리얼 로프코스 : 스릴 넘치는 실내 로프 체험시설
 슬라이드 : 중력 에너지를 이용한 3층 높이 곡선 슬라이드

실외 어드벤처
 하늘넷 어드벤처 : 프랑스 예술감성과 자연이 만들어낸 특별한 놀이터
 포레스트 어드벤처 : 숲속에서 펼쳐지는 스릴만점 모험시설
 익스트림 슬라이드 : 숲을 관통하며 아찔한 속도의 쾌감을 느껴보는 국내 최대 길이(115m)의 미끄럼틀

다양한 편의시설
 영유아들을 위한 무료 편의시설인 숲놀이터, 다양한 먹거리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푸드코트, 그물쉼터, 트리하우스, 카페, 관광객 휴게공간 등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동두천시

레미콘업계 조업중단 현실화하나

내일 시멘트업계와 재협상

시멘트 가격 인상에 반발하면서 조업 중단을 예고한 중소 레미콘업계가 7일 시멘트업계와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두 업계는 8일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소 레미콘업계와 시멘트업계는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재로 서울 강남구 한국레미콘협회동조합연합회에서 만났다.

중소 레미콘업계는 시멘트업계에 하반기 가격 인상분을 내년 3월 1일자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업체들은 원자재값 인상을 이유로 올해 상반기 t당 시멘트 가격을 17~19% 인상했고, 하반기에도 또 한 차례 가격을 인상하면서 현재 t당 시멘트 공급 단가는 10만5천~10만6천원 수준으로 올랐다.

시멘트사가 올해만 가격을 최대 35% 올리면서 원가 부담이 급등하자, 중소 레미콘업계에서는 적절한 납품단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중소 레미콘업체로 이뤄진 한국 레미콘협회동조합연합회는 오는 10일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시멘트 가격 기습인상 규탄대회에서 중소레미콘업체 대표 등 참가자들이 가격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터 무기한 조업 중단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경우 전국 건설공사 현장에서 조업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앞서 중소 레미콘업체 대표 700여명은

지난 8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시멘트 가격 인상 철회를 촉구했고, 정부와 국회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데 “경찰이 과잉금지원칙과 경찰 수사 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며 “인권위는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이 7월 20일부터 한 달간 성매매

시민단체 “경찰 성매매 단속때 여성 촬영 중단해야” 인권위에 진정…”얼굴 등 찍은 영상 언론에 배포해 인권 침해”

경찰이 성매매 단속을 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등은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 여성의 신체 촬영물 제공 행위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떤 공익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여성의 인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진정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올해 7월 21일 서울 수서경찰서가 성매매 여성의 얼굴 등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출입기자단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보도자료로 공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과잉금지원칙과 경찰 수사 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며 “인권위는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이 7월 20일부터 한 달간 성매매

단속·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 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속옷 착용 등 신체 노출이 많은 상태에서 촬영 당한 여성이 7명이었고, 사위 중 알몸 상태로 찍었다고 답한 여성도 있었다.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 여정은 “불법 촬영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금까지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은 단속이라는 이름하에 묵인돼 온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성매매 단속에 초소형 비디오파카메라를 동원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수사 관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혜 변호사는 “경찰은 소위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초소형 비디오파카메라를 사용해 성매매 여성이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현장 영상을 촬영해왔다”며 “최소침해 원칙과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 양준호 기자

취임 100일 김동연, ‘옛 공관 도민 이관·맞손동행’ 행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현판식(도민 이관식) 및 맞손 동행’ 행사를 열었다.

도담소는 ‘도민을 담은 공간’이라는 의미로 도민 공모전을 통해 이름을 선정했

다. 행사에는 공모전 수상자와 온라인 패널, 꿈나무 기자단, 발달장애인 공연단 등 15명이 참석해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김 지사는 “제가 꿈꾸는 경기도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학업에 대한 자유에 제한을 받는 분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도담소 현판식은 정말 뜻깊은 행사”라며 “도민과 소통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경청하고, 도담소 이름 그대로 도민들의 뜻을 담고 도민들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도정을 펼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행사에서는 소외지역으로 불리는 파주 해마루촌 주민들과 이원 생생계 현장 소통도 진행됐다.

현판식 후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인근 수원화성 둘레길을 걸으며 나들이 나온 도민들을 만나 민심을 경청하기도 했다. / 정지훈 기자

‘검언유착’ 제보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 불응하다 구속



윤우진 前세무서장 관련 재판 수개월 불출석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 지모씨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 응하지 않다가 끝내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최대건 부장검사) 산하 불출

석 피고인 검거팀은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지씨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지씨는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최근까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씨가 출석 명령에 계속 불응하자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강제 구인을 요청했다.

구속된 지씨는 앞으로 구치소와 법정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된다.

/ 김유정 기자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與, 정부조직개편안 법안 발의 완료... “소속 의원 전원 참여”

주호영 “민주당 정부에서도 의원발의 형태로 정부조직법 처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관한 정부의 설명을 청취하고 의원 발의하기 위한 화상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 및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법안을 ‘당론’ 성격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주호영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조직 개편 ‘속도전’을 위해 정부 발의 대신 의원 입법을 택한 것으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15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한편, 생애주기 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종합적·전략적 추진체로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밖에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소속 의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 의원총회를 열어 개편안 내용을 논의했다. 화상 의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정부조직개편안의 내용

을 여당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권은희 김미에 의원 2명이 ‘여가부 폐지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수 있으니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도록 하는 안을 내달라’는 의견을 냈고, 그 외 특별한 반대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선 의총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야당에도 설명했는데 야당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일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여가부 기능 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가부 폐지와 기능 조정이 우리 당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공약 이행 차원과 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을 정부가 냈으니가 가급적 도와주고 지원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안 추진이 이전보다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 발의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함에도 의원 발의로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이전 3차례의 경우를 보니 민주당 정부에서도 모두 의원 발의 형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이순신의 ‘정중여산’ 인용한 이준석 “어느 누구도 탈당 말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勿令妄動 靜重如山 (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고 적었다. 이날 새벽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징지 1년’이라는 추가 징계를 받은 뒤 이 전 대표가 낸 첫 메시지다.

이 전 대표가 인용한 ‘물령망동 정중여산’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순신 장군이 1592년 임진왜란 중 처음으로 출전한 옥포해전을 앞두고 장병들에게 당부한 말로 알려져 있다. 추가 징계를 받으면서 수세에 몰린

자신의 처지를 임진왜란의 첫 해전에 임하는 이순신 장군에 빗대 향후 정치 각자의 위치에서 勿令妄動 靜重如山 (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고”라고 언급, 일각서 제기되는 ‘신당 창당설’에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3·9 재보궐선거 공천심사 과정에서 당과 갈등을 빚은 김재원 당시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령망동 정중여산’이란 문구를 올리며 김 최고위원의 탈당을 만류한 바 있다. / 정찬영 기자

‘성남FC 의혹’ 네이버 증거 인멸 정황

검찰, 직원 3명 자택 등 강제수사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네이버의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중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네이버 직원 등 3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6일 네이버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던 중 PC 등에서 증

거 인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직원은 성남FC 후원금과 신사옥 건설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것이다. / 손해원 기자

이재명, 한미일 동해 훈련에 “극단적 친일 국방...정부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한미일의 동해 합동 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로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을 끌어들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에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지만’이라고 말한 것이 현실화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며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다.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원치 않는데,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리다가 흑시 다시 국지전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

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 대국화, 보통 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합동 훈련에 대해 정부가 명백히 사과하고 대신 이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안 한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정부가 MBC·YTN 등 공영방송과 각종 공공서비스 등의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민영화 저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대응할 방침이다. / 김민석 기자

진주남강 유등축제
2022.10월.10~10월.31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성·진주남강 일원
GYEONGSANGNAM-DO JINJU CITY
慶尙南道 晉州市

개천예술제
1949-2022
71st
목적! 나누기! 인연보내기!

모두! 함께 하는!
2022. 10. 27.(Thu) ~ 11. 3.(Thu)
[음. 10. 3. ~ 10. 10.]
경상남도 진주시 일원

주최 | 진주시·[사]한국예술 진주지회
주관 | 개천예술제 제정위원회
문의 | 055 752 0111 / 055 763 8100
www.gaecheonart.com

KOREA DRAMA FESTIVAL

진주
2022.10.21.
~2022.11.3.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KDF콘서트
경남문화예술회관
축제, 행사
장대동 남강동치일원
포럼
경상국립대학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KOREA DRAMA FESTIVAL

주최 | [사]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후원 | 경상남도 문화체육관광부 | 부산 | 원로주한 KOMIC... | 문화원 서양부

미국 FDA 승인, 유럽 CE 인증으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받은 히알루론산 필러

필러 레스틸렌[®] 하세요



광고심의필: 조합-2022-07-067/2025-02-27 | KR-RES-2200036_240317_V2.0 품목: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세요.

Restylaneblog.co.kr [Instagram.com/restylanekorea](https://www.instagram.com/restylanekorea) [\[레스틸렌\] 검색](#) [Facebook.com/RestylaneKorea](https://www.facebook.com/RestylaneKorea)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10길 26 (반포동, 반도빌딩 7층)

TEL | (02)6717-2000(구입문의) / (080)904-8600(제품불만, 이상반응) FAX | (02)6717-2001

GALDERMA
EST. 1981

강기정 광주시장 “군공항 개발제한구역 총량 관리 전환” 건의 “지자체 광역계획권별 총량→정부 국책사업 총량으로 관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군 공항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의 국책사업 해제 가능 총량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7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광역계획권별 총량과 정부의 국책사업 총량으로 구분된다.

광주 군 공항 주변은 현재 광역계획권별 총량에 포함돼 이 일대를 해제할 경우 총량 제한에 걸려 정작 신규 산단 조성 등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워진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강 시장은 “군 공항 이전과 같은 국가안보 정책 관련 사업은 국책사업 해제 가능 총량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계획권별 총량 허용 면적을 확보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 노승만 기자

‘행방불명’ 사유 병역 미이행자 967명 재난지원금 수령

‘행방불명’으로 군대에 가지 않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이들이 1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가운데 상당 인원을 추적해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 자원이 모자라는 상황에 의무자 관리가 심각하다”며 “행방불명으로 병역 의무를 안 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은 인원이 967명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에 “967명이 (재난지원금)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 인원을 추적해서 732명을 색출했고,

현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왜 나머지를 찾지 못하는지는 설 의원의 질문에는 “행정안전부, 교정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행방이나 정보를 받아 수사하면 빠르는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제공을 못 한다고 한다”며 “그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하려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 청장은 또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 뿐 아니라 올해는 산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지원금을 받았다. 그 사람들까지 해서 현재 계속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신은수 기자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기식 병무청장(오른쪽)이 답변하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식약처장, 감기약 대란 우려에 “쓸 카드 다 써”...약값인상 검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7일 감기약 수급 불안정 대책으로 약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식약처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기약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오 처장은 감기약 수급과 관련해 “해열진통제 중 특수 조제용 성분,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가 약품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하는 제도인 ‘약가 연동제’ 적용을 8월 완화했지만, 이는 감산은 막아도 적극적인 증산을 유도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생각한

다고 오 처장은 설명했다. 오 처장은 “약가 조정을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약가가 오히려 옛날보다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서 제약사 해열진통제 생산 참여와 증산을 독려하기 위해 약값 인상 등 행정·재정지원 방안을 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이 현재 51원인데 일반용은 한 정 당 200원이기 때문에 51원의 약을 생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수호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박진, 캐나다와 14일 외교장관회담...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양국관계 강화 방안 논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4일 멜라니 쥘리 캐나다 외무장관과 서울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양 장관은 회담에서 지난달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내년 수교 60주년을 맞는 양국관계의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캐나다에서 정상 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또 ▲규범에 기반한 국제체제, 민주

주의, 자유, 인권 및 양성평등 수호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 강화 ▲경제 번영과 경제안보 증진, 공급망·핵심광물·과학기술혁신 협력·교역·투자촉진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응, 에너지 안보 지원,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개발 ▲보건 및 문화 파트너십 심화 등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 권유희 기자

육사에 ‘6·25 참전’ 미술관학교 졸업생 추모비 추가 건립



육군사관학교와 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챕터는 7일 교내 ‘웨스트포인트 추모공원’에서 14명의 6·25 전쟁 전사자를 기리는 추모비 제막식을 열었다. 추모행사 후 전성대 육군사관학교정(왼쪽에서 다섯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 졸업생들의 추모비가 서울 육사 캠퍼스에 추가로 건립됐다.

육군사관학교와 주한미군전우회 코리아챕터는 7일 교내 ‘웨스트포인트 추모공원’에서 14명의 6·25 전쟁 전사자를 기리는 추모비 제막식을 열었다.

14명은 1946년 미국 육사 졸업생 가운데 6·25전쟁에서 전사한 이들이다.

6·25전쟁 당시 1945년부터 1951년 사이 미국 육사를 졸업한 7개 기수 초급장교들의 희생이 가장 컸다고 육사는 전했다.

육사와 코리아챕터는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96년 교내에 웨스트포인트 추모공원을 조성했다.

이번을 포함해 5개 기수의 추모비가 건립됐고, 내년도 정전 70주년이자 한미동

맹 70주년에 맞춰 7개 기수 졸업생 전사자 추모비를 모두 건립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미8군사령관 윌라드 벨러스 중장과 전성대 육군사관학교장, 이서영 코리아챕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코리아챕터가 추모비 제막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했다고 육사는 전했다.

/ 김철기 기자

가평군 JARA ISLAND YOUR OWN PARADISE

2022 자라섬남도꽃정원

2022.9.18(월) ~ 10.16(일)

입장 09:00 ~ 18:00 퇴장 21:00

외부 관광객은 5,000원권 지역상품권을 교환 후 입장가능 (면제 : 가평군민, 미취학아동)

“입구 길 터주세요”... ‘불금’ 강남 클럽 불시 마약 단속

창원시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학술강연·문화전시 등 진행

7일 오후 10시 15분, 서울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의 유흥업소 밀집 골목.

한 클럽에 경찰과 소방관 등 여러 명이 일시에 진입하자 근처에서 ‘불금’을 즐기던 시민들이 순식간에 클럽 입구 주변을 에워싸며 웅성거렸다.

“이따 여기 가려 했는데 무슨 일이지?”라며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범죄인가 혹시 마약?”이라며 호기심을 드러내는 반응도 있었다.

클럽에 들이닥친 이들은 서초경찰서와 서초소방서, 서초구청, 서울시청 직원 등 총 51명으로 구성된 합동 마약 단속반이다. 이들은 이날 하루 관내 대형 클럽 4곳을 불시 단속했다.

김한곤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은 단속 시작 전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공터에서 단속반을 4개 조로 나눈 뒤 조별로 작전을 지시했다.



7일 밤 서초경찰서·서초소방서·서울시청·서초구청 공무원들이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위해 서울 강남의 한 클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합동단속반은 최근 늘고 있는 마약 및 몰카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김 과장은 “최근 3개월 동안 클럽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관련 신고가 종종 접수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각 조는 점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초경찰서는 최근 관내 클럽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클럽 영업 직원도 여기에 관여한다는 등의 제보를 다수 확보했다. ‘던지기’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놔두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경찰은 아울러 클럽에서 배출된 쓰레기 등을 확인해 실제 마약류 투약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서 이번 단속에 나섰다. 단속반이 차례로 클럽 내부로 들어가자 입구를 지키고 선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터줬다. 평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체념한 듯 시선을 피하는 경호원도 있었다.

단속이 시작되자 내부는 일순간 어수선했다. 일부 손님은 뒤를 돌아보며 도망치듯 클럽을 빠져나오기도 했다.

자정을 넘겨 2시 30분가량 진행된 이날 단속에서 실제 마약 유통이나 투약 등의 불법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단속반은 이날 마약 범죄 외에도 불법 카메라 설치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안전시설 관리 상태 등도 함께 점검했다.

/ 송종호 기자

경남 창원시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59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 행사는 전국 도서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학술강연·문화전시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도서관 관련 최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창원시 등이 후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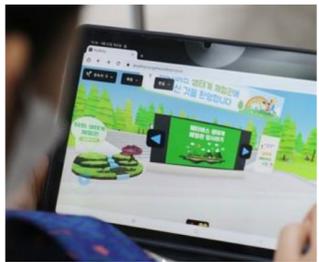
코로나19로 3년 만에 현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다시 일상으로! 함께하는 도서관!’을 슬로건으로 펼쳐진다.

전국 도서관 직원 등 3천500여명이 이 기간 창원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46개의 학술강연에 더해 도서관 첨단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는 도서관문화전시회도 함께 선보인다.

창원시는 대회 첫날인 12일부터 이틀간 특별 버스를 운영해 도서관 우수 성과를 홍보한다. / 서정미 기자

새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 정보과목 수업시수 확대 명시 검토



‘교육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총론의 성격에 고려해 기존 시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과학교의 설립 취지를 고려해 통합과학 과목을 축소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역시 타 계열 특목고와의 형평성, 선행학습 우려를 감안해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보과목 수업시수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타 교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준안을 유지하되 공청회와 2차 국민의견 수렴, 전문가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34시간인 중학교 정보과목 수업시수를 68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 12월 새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8일 오후 한국교육대학교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앞서 ‘국민참여소통채널’을 운영해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했다.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은 이 가운데 총론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했다. ‘생태교육’과 ‘노동교육’을 교육목표에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연구진은

/ 변수호 기자

여가부 폐지 과정 ‘안갯속’... “행안부와 소통 기록 안 남겨”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설명회

김현숙 장관 “중간 과정 중요하다고 생각 안해”

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어원영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최근 여가부에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행안부와 협의·소통 실적을 묻자 여가부는 “유선 통화, 면담 등으로 수시 협의했으며, 공식 면담이 아니므로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

여가부는 또 “국무조정실과는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 6일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가부 임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묻자 “행안부 장관이나 담당자들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여가부의 설명대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소통 내용은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같은 날 “여가부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다른 부처는 뭐라고 했는지 중간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종 결과를 어떻게 갖고 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꾸린 전략추진단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수렴한 의견도 행안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이 회의록 속기록 역시 남기지 않았다.

민주당 여가위원들에게 제출한 전략추진단 간담회 결과는 회의마다 주요 내용이 한 문장으로 정리돼 있는 데 그

쳤고, 참가자 성명은 성만 드러내고 이름은 가려져 있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참석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며, 전문가와 정책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이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성계에서는 취임 직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고 강조하던 김 장관의 입장과 모순된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권수현 여세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여론을 듣겠다고 했으면 어떤 의견을 바탕으로 지금의 계획이 나왔는지 설명해줘야 하는데, 결과만 내놓으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 황희정 기자

시범사업 기간

2022년 7월 4일 ~
2023년 6월 30일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054-280-4170
대표번호 1577-1000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쉬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함께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AI의 미래가 궁금해

AI시대를 이끌어 갈 우리의 학생과 청년들이
더 멀리 보며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LG의 다양한 AI교육프로그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美, 반도체장비·AI용 칩 對中 수출 통제

AI·슈퍼컴퓨터 칩엔 화웨이식 제재...”미국 안보·외교이익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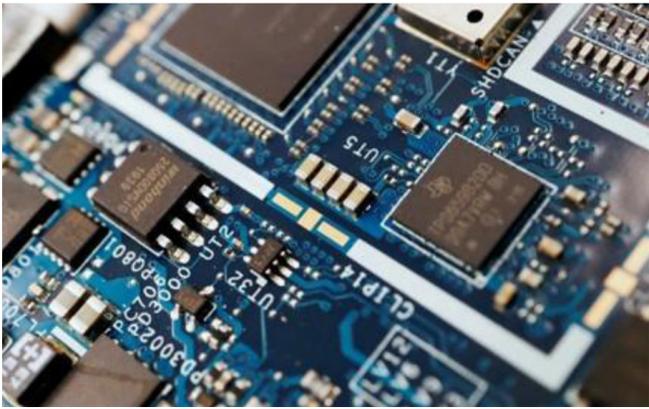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이 반도체와 관련해 개별 기업이 아닌 특정 기술을 기준으로 중국을 겨냥해 포괄적이면서 고강도의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슈퍼컴퓨터용 반도체칩과 관련해서는 이란바 화웨이식 제재도 포함되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용 반도체 칩 등에 대한 제한적 수출 통제 및 특정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새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두 건의 규칙으로 발표된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 칩을



컴퓨터 내 반도체칩

확보하고,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 장치와 능력을 대량살상무기(WMD)를 비롯한 첨단 무기

시스템 생산, 군의 결정과 계획 및 물류의 속도와 정확성 개선, 자동 군사 시스템, 인공 유린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수출 통제 사유를 밝혔다.

이날 발표된 통제 조치는 우선 미국 기

업이 특정 수준 이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등을 초과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미국 기업이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중국 내 생산시설이 중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 이란바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다만 중국 내 생산시설을 외국 기업(multinationals)이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적 심사로 결정하겠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다.

/ 송민서 기자



자포리자 원전서 경계 근무 중인 러시아 군인

IAEA “자포리자 원전에 또 포격...한때 비상발전 의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 속에 방사성 물질 유출 우려가 커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시설에 포탄이 떨어져 전력선이 파손되는 사태가 또 벌어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전날 자포리자 원전 외부 시설에 포격 피해가 발생하면서 150kW 외부 전력선이 손상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전력선이 끊어지자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1시간30분간 가동하면서 원자로에 전원을 공급했다고 IAEA는 설명했다. 원전과 연결된 전력선 파손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원전 내 냉각 시스템에 전력이 공급되지 못하면 원자로 과열로 핵연료봉 다발이 녹는 노심용융(멜트다운)이 발생하고,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중대 사고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자포리자 원자로 6개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최소한의 안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력 공급은 여전히 필요한데 또다시 발생한 포격으로 전력선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이다.

자포리자 원전에서는 지난달 21일에도 동일한 전력선이 포격에 파손됐다가 복구됐다. 2주 만에 전력선 파손 사태가 재연된 점을 두고 IAEA는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라파엘 그로스 IAEA 사무총장은 “원전 내 숙련된 직원들이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걸 원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키이우에서 만나 원전 안전구역 설정 방안을 협의한 그로스 사무총장은 내주 초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아 안전구역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 배해미 기자

중국 7중대회 내일 개막...‘시진핑 대관식’ 마지막 준비

당대회서 통과될 당헌 개정안 토론...시 ‘핵심’ 지위 공고화 전망

‘시진핑 대관식’을 최종적으로 준비할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회의(7중대회)가 9일 베이징에서 개막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8월 30

일,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가 10월 16일 개막하고, 그에 앞서 10월 9일부터 7중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산당 ‘최고 영도기관’인 중앙위원회

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 대회 사이에 7차례 전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았다.

19기 중앙위원 200여 명과 후보위원 170여 명 등 370명 이상이 모여 비공개리에 개최하는 7중 전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당 대회를 최종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다.

회의에서는 16일 개막하는 20차 당 대회 개최와 관련한 세부 일정을 결정하고, 당장(黨章·당헌) 개정안 등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된다. 그와 더불어 지난 5년간 당의 성취를 정리하고 현재의 정세와 당의 임무에 대해 분석 및 논의한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당 총서기인 시 주석은 20차 당 대회에서 할 업무보고 초안을 7중대회때 중앙위원들에게 설명한다. 이어 중앙위원들은 토론을 거쳐 보고

서에 대한 심의를 20차 당 대회에 제정하게 된다.

당장 개정안에는 시 주석의 ‘핵심’ 지위를 강조하는 이른바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가 새롭게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명보 등 홍콩 매체발로 제기됐다.

‘두 개의 확립’은 시 주석의 당 중앙 핵심 및 전당(全黨)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말한다.

‘두 개의 수호’는 시 주석 당 중앙 핵심 지위 및 전당 핵심 지위, 그리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각각 결연히 수호한다는 의미다. 당 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뤄질 당장 개정을 통해 시 주석의 당내 절대적 권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당 대회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도 베이징은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 배순호 기자



구글, 내년 일본에 첫 데이터센터 오픈

구글이 2023년 일본에 첫 데이터센터를 오픈한다고 손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가 7일(현지시간) 밝혔다.

일본 지방엔지니어링에 들어서는 이 센터는 구글이 2024년까지 일본에 투입하기로 한 7억3천만 달러(1조원) 규모 투자 일부다. 이 시설은 대만과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구글의 세 번째 데

이터센터다. 피차이 CEO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 새로운 시설은 구글의 톨과 서비스 운영을 가속화하고 지역 경제 활동과 일자리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년 만에 일본을 찾은 그는 2019년에는 구글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설립을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

/ 김성민 기자

SAMSUNG

T7 Shield

압도적 내구성의 포터블 SSD

연속 읽기 성능 1,050MB/s | 연속 쓰기 성능 1,000MB/s | IP65 등급 방수·방진 | 최대 3m 낙하 충격 보호

*연속 읽기 이미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samsung.com/portable-ssd>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가한 한미 해군 함정들이 29일 동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미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 항해 모습

북, 美항모 동해 훈련에 “매우 우려스런 현사태 엄중히 주시” “항모타격단 재진입만으로 지역정세 부정적 파장 대단히 커”

북한은 한미가 8일 동해에서 미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천t급)가 참여하는 해상 연합기동훈련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군사적 허세”라면서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사와 나눈 문답에서 “현재 미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타격집단이 남조선(남한) 괴뢰 해군함선들과 조선 동해 공해상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해상연합기동훈련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변인은 “이는 명백히 미국과 남조선의 극히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합동군사연습에 우리 군대가 정당한 반응을 보이는데

대하여 소위 경고를 보내려는 군사적 허세”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 사태 발전에 대하여 엄중히 보고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이 언급한 ‘군대의 정당한 반응’은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대변인은 “미국이 불과 며칠만에 핵 항공모함 타격집단을 조선반도(한반도) 수역에 재진입시켰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 정세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은 대단히 크다”고 주장했다.
남한의 국방부 격인 북한 국방성의 이런 반응은 앞으로도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처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로 대응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

된다.
한미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방위능력 향상을 위한 해상 연합 기동훈련을 한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구축함 문무대왕함, 호위함 동해함이 투입됐다. 미국 해군은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이지스순양함 찬슬러스빌함,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과 배리함이 참가했다. 레이건호는 이날 제주도 동남방 해상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지난 4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해 4천500km를 비행시키는 도발을 감행하자 이튿날인 5일 전격적으로 회항, 다시 동해로 진입했다.
/ 조규돈 기자

한국인 개인정보 털고 보이스피싱 도운 北해커들

北해커, ‘가치있는’ 정보 얻으려 사이버공격 지속



북한 해커들이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훔치고 보이스피싱 기술까지 제공해 전문 학적인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북한의 정보기술(IT) 분야 종사자들은 보이스피싱 해킹 애플리케이션(앱)과 IP주소 등을 팔아 외화벌이를 나섰다.
지난 2020년 7월 중국 텐진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 국적자 4명 중 1명이 ‘범죄 단체가 한국인들의 개인정보와 보이스피싱 해킹 앱을 북한의 한 IT 종사자로부터 구매했다’고 증언한 사실이 보고서에 담겼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공조 수사를 펼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8명을 검거한 것을 발표했을 때 상당 부

분 공개된 내용이다.
경찰과 국정원 조사 결과 이들은 북한 해커가 국내 대부업체를 해킹해 입수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대출 현황 등 개인정보를 사들여 보이스피싱을 벌였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북한 해커가 개발한 ‘스파이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이 앱을 통해 해당 휴대전화 정보와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고, 은행 또는 보험사 직원 행사를 하며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국내에서만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회원국 당국은 이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총 6억3천500만 달러(약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 허지선 기자

전문가패널은 또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서버를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만 사용되는 고유의 전문 용어가 포착됐다고 전했다. 올해 초 한 회원국이 입수한 보이스피싱 해킹 앱 매뉴얼과 비디오클립에는 자신을 ‘비류강 해외기술협조사’에서 일하는 ‘송림’이라고 소개한 북한인이 앱 작동법을 설명한다.
비류강 해외기술협조사는 북한 로케트공업부 산하 합장강무역회사와 직접 연계된 회사로, 로케트공업부는 군수공업부의 산하 조직으로 알려졌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김수키, 라자루스, 블루노로프, 스톤플라이 등 해킹 조직들이 북한에 ‘가치 있는’ 정보를 입수하고 제재 영향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지속했다는 지적도 이번 보고서에 명시됐다.
올해 1분기 방산업체들을 포함한 47개 회사와 기관이 라자루스가 배포한 신종 멀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수키 그룹은 ‘xRAT’ 멀웨어와 워드 또는 PDF 파일로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으로 스피어피싱을 벌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패널은 라자루스가 올해 1월 화학, IT 분야에서 ‘북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수의 해당 업체들에 공격 초점을 맞췄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라자루스는 일자리를 제안하는 가짜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들이 링크 또는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멀웨어를 설치하게 만드는 일명 ‘꿈의 일자리’ 작전을 펼쳤다.
/ 허지선 기자

지금 이 건강 챙길 때, 삼성화재 건강보험을 만날 타이밍!

건강한 오늘을 지키는 방법도 내일의 안약을 대비하는 든든함도 삼성화재와 함께 챙기세요

삼성화재 유류보험에서 광고 스토리를 확인해보세요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권영세 “위성없이 일반 TV로 북한방송 볼 수 있게 할 것” 북한 인터넷 매체 개방은 “양방향성” 이유로 신중한 태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방송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북한 인터넷 매체 개방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권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미 홍콩 위성방송을 통해 북한 방송을 볼 수 있는데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일반 수신기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권 장관은 “위성을 통하지 않고 일반 수신기로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진전된 조치가 될 수 있다”며 “점진 가능성을 인정하나 안하느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정감사 서면 업무 보고를 통해 “단기간 내 남북 상호 개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우리가 먼저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면서 상호 개방과 소통을 위한 교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7월에도 대통령 업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보고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북한의 언론·출판·방송의 국내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금도 북한 방송을 남한에서 시청한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위성 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를 갖춰야 해 현실적으로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권 장관은 “인터넷을 통한 북한 미디어의 개방도 추진하는가”라는 하 의원의 질의에는 “양방향성이 있는 부분은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 김유정 기자

이어 “예를 들어 SNS 같은 부분”이라며 “여기에 글을 쓰고 하는 부분은 통신이 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남북미 연락사무소 추진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는 “남북미 연락사무소 문제는 ‘담대한 구상’ 초기 조치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다”며 “협치가 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 김유정 기자

유엔 대북제재위 “北, 미사일 기술적 성과...핵실험 최종단계”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회피하면서 미사일 개발에 나뉘는대로 기술적 성과를 거두었고, 핵실험 준비도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는 유엔의 평가가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

북제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과거 가진 폐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재개방한 뒤 기폭장치를 시험하고, 새 경도를 파 추가 핵실험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패널은 지난 3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경도에 대한 복구에 나선 사실을 관찰했다고 밝혔다. 또한 핵실험과 관련한 건물도 재건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 강혜운 기자

'10월은 축제의 계절'...부산 곳곳서 볼거리·즐길 거리 풍성



지난 5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3년 만에 재개된 대면 행사에 영화제 복직, 15일에는 BTS 콘서트

10월을 맞아 부산지역 곳곳에서 축제가 잇따라 열리면서 부산 전역이 거대한 축제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축제 대면 프로그램이 3년 만에 전면 재개되면서 시내 곳곳에 모처럼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에서는 지난 5일부터 시작된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는 14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영화 팬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정상 개최된 행사로 5천장에 달하는 개막식 입장권이 순식간에 매진되고, 관객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되며 기대감을 모았다. 한글날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황금연휴 사흘 동안은 주 무대인 해운대와 남포

동 일대에서 영화배우와 감독들의 관객 만남 행사가 이어지면서 많은 영화 팬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71개국 243편의 영화가 30개 극장에서 실 세 없이 상영되고, 올해는 지역 밀착형 사인 '동네방네 비프행사'가 부산 17곳에서 확대되면서 부산 전역이 영화 팬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금정구 범어사, 사하구 다대포해변공원, 서구 송도오션파크, 수영구 밀락더마켓, 동구 북항 친수공원과 차이나타운 등 부산 도시 정체성과 역사성을 갖춘 곳에서 행사가 열리며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준다.

내주 주말인 15일에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무료 콘서트

가 열릴 예정이라 부산을 들쭉이게 한다.

5만여명의 전 세계 아이(방탄소년단 팬클럽)가 부산에 집결할 것으로 예고되며 전세편 항공기가 추가로 뜨고, 도시철도와 KTX가 증편 운영되는 등 관련 업계도 행사 준비에 분주하다.

발 빠르게 관련 이벤트를 준비한 호텔들뿐 아니라 모텔과 소규모 숙박시설까지 예약이 꽉 차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자체가 준비한 축제들도 잇따른다. 부산역 일대 차이나타운에서는 14~16일 거리 전역에 흥음이 내걸리며 중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14~16일 광안리 해수욕장과 수영사적공원일대에서는 민속체험과 어방그물끌기, 드론 라이트 쇼, 각종 체험행사를 즐

길 수 있는 광안리 어방축제가 준비됐다.

남구에서는 야간 관광 테마를 주제로 '옹호별빛 축제'가 13일부터 16일까지 펼쳐지고, 같은 기간 동래읍성 북문 일대에서도 '조선 동래를 만나다'는 슬로건으로 역사교육형 체험 축제가 펼쳐진다.

축제는 이달 말까지 계속 이어진다.

21일에는 서구에서 '부산고등어축제'가 열리고, 22일 중구에서는 부산국제가요제가 펼쳐진다.

27일부터 사흘간은 부산시가 주최하는 케이팝(K-POP) 축제인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이 열린다.

30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메인 콘서트는 마마무, 강다니엘, 브레이브걸스, 트세라핀, 유주 등 13팀의 유명 가수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알려져 케이팝 팬들의 설레게 한다.

/ 고광복 기자



새웃 갈아입은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전국에 널리 알려진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이 새 그림으로 관광객들을 맞는다.

통영시는 8일 새 벽화를 알리는 '렛츠고(Let's go) 동피랑 2022' 개막식과 동피랑 마을잔치를 했다. 동피랑은 '동쪽 끝에 있는 높은 비랑(비탈의 사투리)이란 의미다. 통영 시가지 중심지 강구안 언덕에 위치한 달동네가 동피랑이다.

동피랑은 한때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2007년 지역민들이 집담장, 벽에 벽화를 하나씩 그리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살아났다.

임소문, SNS를 타고 동피랑 벽화마을이 이른바 '사진발' 잘 받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는 이색 명소가 됐다.

/ 김채원 기자

'마틸다' '캣츠' 가족 뮤지컬 잇달아 무대에

20~30대 마니아 관객 위주인 국내 뮤지컬 시장에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가족 뮤지컬과 중장년을 겨냥한 뮤지컬이 찾아온다.

이달 5일 서울 구로구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개막한 뮤지컬 '마틸다'는 아동문학의 거장 로알드 달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 4년 만의 국내 재공연으로, 초연 당시 어른부터 아이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련된 동화 같은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9~11세의 아역 배우들이 주인공으로,

오디션을 통해 뽑힌 아역 배우들과 베테랑 뮤지컬 배우들의 연기 호흡이 관전 포인트다.

'캣츠'는 12월 22일 경남 김해를 시작으로 세종(12월 30~2023년 1월 1일), 부산(1월 6~1월 15일), 서울(1월 20~3월 12일)에서 관객과 만난다.

서울시뮤지컬단 김덕희 단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의 뮤지컬 관객층이 주로 20~30대 여성이었다면 50대 이상의 관객이 즐길 작품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백혜련 기자



1896년 창간된 '대조선독립협회보'와 1908년 창간된 우리나라 근대 종합잡지 호시 '소년'(왼쪽)

126년 국내 잡지 역사 한눈에...내달 첫 '잡지주간' 행사

전시·콘서트 등 다채...잡지협회 "매출 줄어도 전문지 5천800종"

126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잡지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잡지주간 2022' 행사가 처음 마련된다.

(대한잡지협회(백종은 회장)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열흘간 '잡지주간 20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8월 제3차 정기간행물 진흥 5개년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하면서 잡지의날(11월 1일)이 포함된 기간을 잡지주간으로 처음 지정했다. 올해는 잡지협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다.

잡지주간은 집행위원장을 맡은 백종은 잡지협회 수석부회장은 "잡지산업 매출은 2000년대 초반 해도 2조 원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7천500억 원 정도로 급격히 떨어졌다"며 "하지만 독자층이 세분화하며 중수가 늘어나고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마니아층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전문 잡지는 5천 800여 종이 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잡지주간 행사는 '잡지가 있는 삶'을 주제로 근현대 잡지 특별전, 제15회 잡지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전시회, 제57회 잡지의날 기념식, 매거진 콘서트, 코리아 매거진 콘퍼런스

등으로 꾸며진다.

근현대 잡지 특별전은 '오늘, 당신의 잡지'란 주제로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 전시실에서 오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린다. 최초의 잡지 형태로 1896년 창간된 '대조선독립협회보'와 1908년 창간된 우리나라 근대 종합잡지 호시인 '소년'을 비롯해 150여 종의 근·현대 잡지가 전시돼 시대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제15회 잡지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시는 한국잡지정보관 내 M미술관에서 오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독자가 잡지를 주제로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 중 우수 작품을 시상하고 전시하는 행사다.

잡지의날 기념식은 11월 1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매거진 콘서트는 11월 5일 서울 송파구 책박물관 어울림홀에서 열린다. 코리아 매거진 콘퍼런스는 11월 1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4차 산업시대 매거진 미디어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잡지협회 홈페이지(www.magazin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준호 기자





효과를 높여보세요

당뇨병 걱정없이, 약효까지 강력하게!

강력한 이상지질혈증 솔루션
리바로젯®

효과성

- 복용 후 50% 이상 LDL-C 감소효과 입증 1)
- 저·중등위험군은 물론, 고위험군 이상으로 넓어진 치료범위 2)

안전성

- 당뇨병 안전성을 공인 받은 유일한 스타틴
- 32개국 당뇨병 안전성 공인 3)



1), 2) 리바로젯 3상 허가임상 결과 3) 32개 국가 현황 • 유럽(13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노르웨이 • 동유럽(5개국): 러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르메니아 • 동아시아(5개국): 싱가포르,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 중동(8개국):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요르단, 오만, 레바논, 바레인 • 아프리카(1개국): 모로코

산더미 악재 딛고 분전한 NC... '의미 있는' PS 도전 실패



코치 폭행 사건 등 최악의 분위기서 10위→6위 꺾충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이 벌어진 뒤 얼마 되지 않아 이동욱 전 감독은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NC는 모진 풍파를 이겨내지 못했다. 계속된 악재에 58경기를 치른 6월 9일까지 최하위에 머물렀다.

정규시즌의 40% 이상을 치른 시점까지 꼴찌로 처진 NC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많은 이들은 NC의 2022시즌이 '끝났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NC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동욱 전 감독을 대신해 지휘봉을 잡은 강인관 감독대행을 중심으로 서서히 다시 일어섰다.

FA로 합류한 박건우, 손아섭이 새로운 중심이 됐고, 슬럼프를 이겨낸 양의지, 노진혁 등이 다시 힘을 내면서 타선이 수습됐다. 마운드에선 구창모가 돌아와 선발 한 자리를 완벽하게 메웠다.

오랫동안 허리 부상에 시달리던 외국인 선수 웨스 파슨스를 퇴출하고 새 외국인 투수 맷 더모디가 합류하면서 마운드 전력도 회복했다.

NC는 7월 이후 매달 5할 이상의 월간 승률을 올리면서 한 계단씩 밟고 일어났다. 그 사이 5위를 굳건하게 지키던 KIA 타이거즈는 9연패 늪에 빠지며 추락했고, NC는 막판 추격전을 펼치며 턱 밑까지 쫓아갔다.

NC는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지만, 시즌 끝까지 치열한 5위 싸움을 펼치며 KBO리그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이들과 작별 속에 새 출발 한 NC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 고민수 기자



피겨 차준환, 4회전 점프 올 클린 챌린저시리즈 우승

쇼트-프리서 4회전 점프 4개 성공 그랑프리 시리즈 준비 완료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고려대)이 그랑프리 시리즈 개막을 앞두고 출전한 챌린저 시리즈 대회에서 필살기인 4회전 점프를 모두 클린 처리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차준환은 8일(한국시간) 핀란드 에스포에서 열린 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챌린저 시리즈 핀란드야 트로피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6.26점, 예술점수(PCS) 85.88점, 총점 162.14점을 받았다.

그는 쇼트프로그램 점수 91.06점을 합한 최종 총점 253.20점으로 우승했다.

챌린저 시리즈는 그랑프리 시리즈보다 한 단계 낮은 대회로, 차준환은 컨디션 점검 차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차준환은 쇼트프로그램에서 쿼드러플 살코, 쿼드러플 토티프-더블 토티프 콤비네이션 점프 등 2개의 4회전 고난도 점프를 성공한 데 이어 이날도 4회전 점프 2개를 클린 처리했다.

4회전 점프 4개를 깔끔하게 뛰며 최고의 컨디션으로 예열을 마친 차준환은 10월 21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우드에서 개막하는 그랑프리 1차 대회를 통해 본격적인 경쟁에 나선다.

이날 차준환은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

인 영화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 노 타임 투 다이(No Time To Die)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맞춰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첫 번째 과제인 쿼드러플 살코를 완벽하게 뛰며 기본 배점 9.70점과 수행 점수(GOE) 3.23점을 챙겼다.

이어 쿼드러플 토티프 점프도 무리 없이 소화했다. 착지가 흔들리는 듯했지만, 잘 버텼다.

트리플 러츠, 트리플 플립 점프도 흔들림 없이 수행한 차준환은 플라잉 카멜 스텝,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텝을 모두 최고 레벨인 4로 연기하며 점수를 쌓았다. 스텝 시퀀스는 레벨 3을 받았다.

후반부 연기는 아쉬웠다. 그는 트리플 악셀-싱글 오일러-트리플 살코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언더로테이티드(under rotated) 점프의 회전수가 90도 이상 180도 이하로 모자라는 경우) 판정을 받아 GOE 2.24점이 감점됐다. 이어 트리플 악셀을 뛰려다 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싱글(1회전) 점프로 처리했다.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티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선 쿼터 랜딩(점프 회전수가 90도 수준에서 모자라는 경우)과 언더로테이티드 판정을 받았다.

차준환은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텝(레벨4)과 코레오 시퀀스(레벨1)로 연기를 마무리했다.

/ 손구민 기자

황선홍호 올림픽대표팀, 대학생 위주 테스트

15일부터 18일까지 소집훈련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024 파리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15일부터 나흘간 소집 훈련을 실시한다.

대한축구협회는 7일 올림픽대표팀의 10월 소집 훈련 명단 26명을 발표했다.

26명 중 24명이 대학 선수이며, 2001년생 17명과 2002년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5일 파주NFC(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 소집돼 18일까지 훈련할 예정이다.

황선홍 감독은 "K리그와 해외 클럽 선수들은 소집이 힘든 시기여서 이번에는 대학선수들 중심으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열렸던 한일 대학정기전(한국 3-2 승)에 참가했던 선수들을 주축



황선홍 감독(가운데)과 올림픽 축구대표팀 훈련 모습

으로 하고, 올해 대학 경기에서 눈여겨보았던 몇몇 선수를 추가로 뽑았다"고 말했다.

황 감독은 "대학 축구에도 능력과 잠재

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다"면서 "기존 멤버들과 경쟁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정수호 기자

'동반 플레이' 김주형·김시우, 슈라이너스 오픈 2R 공동 3위

미국과 인터내셔널 팀의 남자 골프 대항전 프레지던트컵에서 맹활약한 김주형(20)과 김시우(27)가 2022-2023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대회에서 선두권으로 반환점을 돌았다.

김주형과 김시우는 8일(한국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PC 서머린(파 71·7천255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총상금 800만 달러) 2라운드까지 중간합계 10언더파 132타를 기록, 공동 3위에 올랐다.

단독 선두인 미토 페레이라(칠레·12언더파 130타)와는 2타 차다.

마찬가지로 PGA 투어 우승이 없는 로비 셀턴(미국)도 8타를 줄이며 한 타 차 2위(11언더파 131타)로 도약,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

/ 이응욱 기자

남원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개관 5주년 특별전

김병종 40년, 빛은 잠들지 않는다

1부. 화홍산수, 송화분분, 풍죽 ('22. 09. 02. ~ 11. 13.)
 2부. 바보예수, 상선약수 ('22. 11. 23. ~ '23. 02. 26.)
 3부. 숲에서 ('23. 3. 21. ~ 6. 25.)
 4부. 길 위에서 "남미부터 북아프리카까지" ('23. 07. 04. ~ 10. 29.)

N K A M

화홍산수

꽃이 활짝

송화분분

씨를 품고

풍죽

바람에 날리면

2022. 09. 02.^{FRI}
— 11. 13.^{SUN}

부산시, 열흘 앞둔 BTS 콘서트 행사장 현장 점검

부산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지원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콘서트를 열흘 앞둔 5일 오후 콘서트장인 아시아드 주경기장 등을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BTS 부산콘서트 총괄지원 전담팀 단장인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BTS 소속사 하이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람객 이동 경로의 안전사고 우려 등을 집중해서 점검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근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또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자원봉사단체 등과 함께 '따뜻한 손님맞이 범시민 캠페인' 출범식

을 하고 시내 주요 관광지 등의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콘서트 당일 부산역, 김해공항, 도시철도 환승역 등 관람객의 주요 이동 거점에 안내요원과 외국인을 위한 통역요원을 배치하고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이날 현장점검에 앞서 부산시청에서 5차 점검회의를 열고 막바지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시는 콘서트 전날인 오는 14일부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 김민경 기자



방탄소년단(BTS) 부산 콘서트

트로트 가수 김다현
청주시 홍보대사 위촉

대구 달서구 주민들 “새 진행자 전국노래자랑 먼저 녹화했는데”



청주시는 오는 7일 제16회 세종대왕과 조정약수 축제 개막식에서 '트로트 신동' 김다현을 청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5일 밝혔다. 국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뽐내고 있는 김다현은 2020년 청학동 국악자매 싱글 앨범 '경사났네'로 데뷔했다. 최근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진성가요제에서 우승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민수호 기자

새 MC 김신영씨 달서구서
첫 녹화...방송은 하남시가 먼저

“진행자가 바뀌고 처음 녹화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더니...” 대구 달서구 주민들 사이에서 모 방송사의 전국노래자랑 프로그램 방송 일정과 관련해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해당 방송사는 지난달 3일 오후 대구 두류공원에서 전국노래자랑 대구 달서구편 녹화를 했다. 그날은 단순한 녹화가 아니라 최근 타계한 송해 선생을 이어 새로 진행을 맡은 김신영씨가 첫 마이크를 잡는 날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방송 제작진이 녹화에 앞서 관객들에게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MC가 바뀌고 첫 녹화가 대구 달서구 편”이라고 하자 운집한 3만여명의 시민이 환호하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중앙일간지 등도 앞다퉈 김씨의 첫 녹화 현장을 찾아 분위기를 전할 정도였다. 일부 언론은 김씨의 고향이 대구라는 점을 들어 “대구가 송해 선생이 묻히고 김신영씨가 태어난 곳”이라며 새 진행자의 대구 첫 녹화 의미를 부각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 조민용 기자

한 신문은 관련 보도에서 김신영이 진행하는 '전국노래자랑' 첫 무대가 10월 16일 낮 12시 10분에 방송된다고 구체적으로 못을 박기도 했다. 당시 녹화장을 찾은 지역 주민이나 관련 보도를 접한 독자들은 당연히 대구 달서구편이 새 진행자가 출연하는 첫 방송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새 진행자의 첫 방송은 대구 달서구편이 아니라 경기도 하남시편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달서구 주민들이 실망스러운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조민용 기자

비·조정석, 난데없는 불륜설에 “허위사실...법적대응할 것”

한류스타 비와 배우 조정석이 여성 골프선수와의 난데없는 불륜설이 유포되는데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6일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루머와 지라시(정보지)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엔 어떤 입

장 표명도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며 “하 지만 어제오늘 루머가 빠르게 퍼져나가 아티스트(비)는 물론 그 가족(김태희)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난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더는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올리거나 악성 게시글

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법정보 유통금지 위반 등으로 선처 없이 법적 절차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레인컴퍼니는 또한 “대중에게 노출된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 예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애민 기자

조정석의 소속사 쟈먼터테인먼트 역시 공식 SNS를 통해 “배우 조정석이 골프 선수와 친분 이상의 관계가 있다는 허위 사실이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는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정석은 그 어떠한 여성 골프 선수와도 개인적 친분뿐만 아니라 일면식도 없다”며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애민 기자

박수홍 친형 61억원 횡령 혐의 구속기소

박씨 개인계좌서 29억원 무단인출



방송인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52)씨의 친형 부부가 박씨 연예활동과 관련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씨의 형인 박진홍 씨를 구속기소, 형수 이모 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진홍 씨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돈과 박씨 개인자금 등 모두 61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진홍 씨는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회사돈 19억원을 횡령했으며, 11억7천만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하는 데 썼다.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사 자금 1억8천만원을 유용했다.

그는 또 박씨 개인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아버지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박씨의 개인자금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진홍 씨가 동생 돈을 관리하면서 2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박씨 법률대리인 노종연 변호사는 부친이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을 악용해 아들 진홍 씨의 처벌을 막으려 한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형법은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했다. 아버지가

박씨 개인자금을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아무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아버지는 박씨가 형을 고소한 이후 박씨를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에는 검찰 대질조사를 앞두고 박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진홍 씨 구속 이후 40억원대 횡령액을 추가로 밝히고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생명보험 관련 의혹은 범죄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계약자와 수익자·납부자 모두 박씨로 돼있어 진홍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동생에게 보험 가입을 강권했다거나 보험금을 챙기려 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진홍 씨 부부가 소유한 시가 100억원 상당의 건물과 관련해서도 매입 과정에서 회사돈 11억7천만원을 쓴 점 이외에 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 정영택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이수진 대표전화 1533-1545
 인쇄인 한현숙 E-mail mbc0300@gmail.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신선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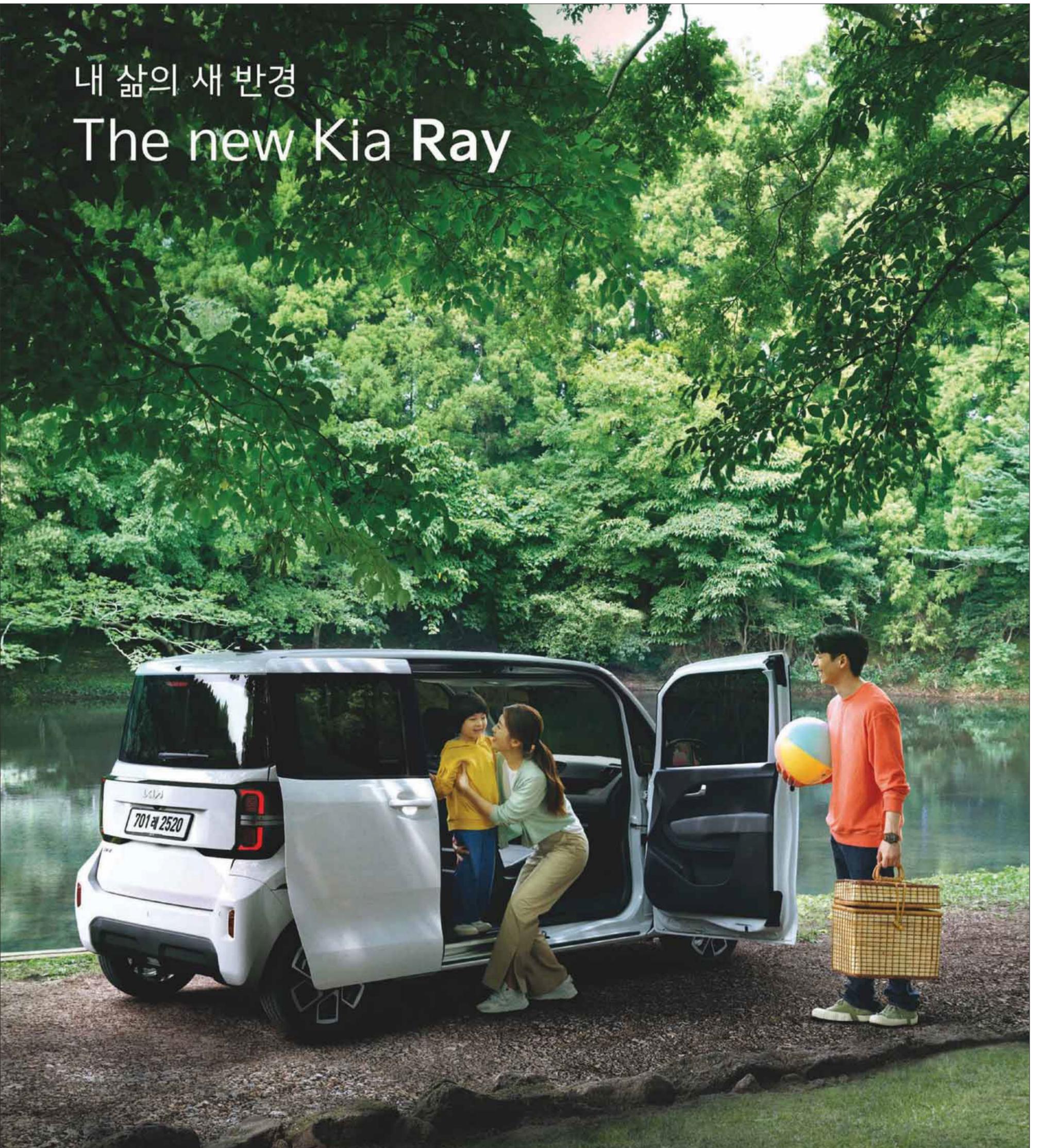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롯데가 응원합니다

상큼함 MAX 칼로리 X

TAMS ZERO

롯데칠성음료

내 삶의 새 반경 The new Kia Ray



Movement that inspires

구매문의 1588-1100 / 고객센터 080-200-2000 | www.kia.com

기아는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의 선택을 지원합니다. 레이 1.0가솔린 2WD 14인치 타이어 자동 4단: 복합연비 13.0㎖/ℓ(도상연비: 12.2㎖/ℓ, 고속도로연비: 14.0㎖/ℓ) | 배기량 998cc | 공차중량 1043kg | 복합CO₂배출량 127g/km - 경형 레이 1.0가솔린 2WD 15인치 타이어 자동 4단: 복합연비 12.2㎖/ℓ(도상연비: 11.5㎖/ℓ, 고속도로연비: 13.7㎖/ℓ) | 배기량 998cc | 공차중량 1045kg | 복합CO₂배출량 131g/km - 경형 레이 1.0가솔린 2WD 14인치 타이어(인송/2인송 변) 자동 4단: 복합연비 13.0㎖/ℓ(도상연비: 12.2㎖/ℓ, 고속도로연비: 14.0㎖/ℓ) | 배기량 996cc | 공차중량 1030kg | 복합CO₂배출량 127g/km - 경형 레이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피구로도에 따라 실 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사양구성은 모델 연식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